

##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상과 사회적지지\*

최 문 향<sup>1)</sup> · 김 승 희<sup>1)</sup> · 오 가 실<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급격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부적응된 행동을 보이는 매우 취약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자아상이 확립되며 이 때 형성된 자아상은 그 이후 성인기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의 확립과정에서 건강한 자아의식을 발달시키는데 방황과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이르러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어느 문화에서나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거기에 수반된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거나 대처하는 데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을 설명해주는 변인으로는 크게 청소년의 개체 특성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개체 특성적 변인은 청소년의 성과 연령 등을 포함하는 인구학적 요인이 되고, 환경적 변인으로는 부부관계,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관심,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지지, 친구 또는 교사와의 관계, 청소년들이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사회적 환경적 특성과 나아가 국가나 사회의 태도, 가치, 신념 등의 환경적 요인이 어떠한가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은 달라질 수 있다(Park & Lee, 1999).

중국의 조선족은 19세기중반부터 20세기 40년대에 이르기까지 조선반도에서 이주·정착한 소수민족이다. 조선족은 고유의 문화와 중화 민족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교육을 중시하고 문화가 선진적인 모범민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의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조선족은 한 자녀를 양육하므로 조선족인구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국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영향으로 조선족 사회는 주거지역의 해체, 가족의 붕괴 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Cai(2004)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연변조선족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중, 부모출국가정 학생이 38.7%, 부모이혼 가정 학생이 7.9%, 부모사망가정 학생이 1.65%로서 결손가정 학생이 도합 52.9%를 차지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결손가정 청소년들은 성격이 괴팍하고 우울하며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대인관계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사회라는 특수한 생태학적 맥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보다 어려움의 과정일 수 있으며 이것은 학계의 관심현상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조선족 청소년들의 자아상 확립과 사회적지지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동안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한국과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스트레스, 자아상 발달에 대한 횡문화적 비교연구(Hong, 1998b; Kim, 1997; Lee, 1995)를 통하여 민족과 문화, 언어, 가치관,

**주요어** : 중국 조선족, 청소년, 자아상, 사회적지지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학생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되었음

1) 중국 연변대학 호리학원 조교수, 2)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투고일: 2005년 7월 18일 심사완료일: 2005년 9월 23일

정책 등 여러 요인들에서 조선족 청소년의 제 문제는 한국의 청소년과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Lee(1995)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연변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역할의 혼동이 한국 고교생보다 연변고교생들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자아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중국 한족 청소년들의 자아상은 남녀의 차이가 없었으며, 자아상 척도의 여러 하위영역에서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과 중국 한족 청소년들의 중간점수를 보여 중국과 한국 사회 사이에서 이중 적응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Hong, 1998a; 1998b). 따라서 조선족 청소년들의 자아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Cho, Lee와 Han(2005)의 연구에서는 조선족 아동의 내적통제성이 외적 통제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각된 사회적지지 정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문제행동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행동문제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불안·위축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 지각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지지와 또래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환경 변인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및 심리적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물리적 환경이 바람직하여 아동의 행동문제는 적어진다고 보고하였으며 교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 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관심과 사랑, 인정, 용납, 이해, 도움 등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심리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최근 조선족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가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조선족 남아 청소년의 자아상 발달 수준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정도,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상 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며 특히 간호학적 접근은 전무한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상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사회·가정환경적인 변화를 직면한 조선족 청소년들의 자아상과 사회적지지의 특성을 파악하여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기반의 지지프로그램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문제**

-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상은 어떠한가?
- 조선족 청소년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는 어떠한가?
- 조선족 남, 여 청소년의 자아상과 인지된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있는가?

-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상은 사회적지지와 관계가 있는가?

**용어의 정의**

● 자아상

자아상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걸친 개인의 경험과 스스로에 대한 생각 등이 어우러진 총체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며(Coombs, 1981; Lee & Kwak, 1994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Offer 자아상 측정도구(Korean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Revised, KOSQ-R)에 의해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결속 관계 안에서 개인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타인에 대한 애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등 지지적인 작용이며(Kahn & Antonucci, 1980), 본 연구에서는 Norbeck, Lindersey와 Carrier(1981)의해 개발된 Norbeck의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Norbeck Social Support Questionnaire에 의해 측정된 값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상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정도 및 두 변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변지역의 5개 조선족 중학교 1,2,3학년 학생 621명이다. 연길지역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조선족 중학교 5개 교 전수를 대상으로 1,2,3학년에서 학년 별 한 학급씩 무선표집을 하여 한 학급의 학생전수를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한 학급의 학생 수는 약 40명으로서 총 15개 학급에서 700명의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그중에서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질문지 79부를 제외하고 총 621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한국어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자 2명이 연길시 각 중학교 지도부와 담임교사에게서 연구진행 동의를 얻은 후, 학급단위로 담임선생님한테 의뢰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3일 후에 다시 방문하여 총 700부를 전부 회수하였다. 질문지 응답시간은 평균 50분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3월 1일부터 9일까지였다.

## 연구도구

### ● 한국판 Offer 자아상 측정도구

이 도구는 홍강의, 신민섭, 김봉석(1998a)이 Offer, Ostrov, Howard와 Dolan(1992)이 개발한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Revised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척도이다. 이 질문지는 13세에서 18세 연령범위의 일반 청소년들의 자아상 발달 및 심리-사회적 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자기-보고형 척도의 도구이며 총 129문항으로 1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나를 매우 잘 기술해준다.”(1)에서 “나를 전혀 기술해주지 못 한다.”(6)까지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전체 자아상점수는 성과 이상주의 영역을 제외한 10개 하위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나온 점수를 말한다. 성과 이상주의 영역이 제외된 이유는 다른 하위영역과 다르게 성은 높은 점수, 낮은 점수 모두가 낮은 자아상을 반영하기 때문이고, 이상주의 하위영역은 문항 수가 적어서 신뢰도가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체 자아상 점수의 해석은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자아상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표준화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84였으며 각 하위영역의 Cronbach's  $\alpha$ 값은 .46에서 .86사이의 값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 .89이었으며 자아상 각 하위영역의 Cronbach's  $\alpha$ 값은 .24에서 .67사이의 값을 보였다. 이상주의영역(.24)과 성 영역(.32)에서 비교적 낮았고, 가족기능(.67)과 직업에 대한 태도(.63), 사회적 기능영역(.60)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 Norbeck의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Oh(1984)에 의하여 우리말로 번역된 Norbeck의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는 총 11개 문항으로 총 기능적 지지, 총 지지망, 총 상실의 3가지 주요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기능적 지지와 총 지지망 2영역만을 측정하였다. 총 기능적 지지는 애정적 지지, 긍정적 지지, 물질적 지지로 구성되었으며, 총 지지망에는 지지원수, 관계유지기간, 접촉빈도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기능적 지지는 각 영역에 2개의 질문이 주어지며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대점수는 720점이며, 총지지망은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지지원수인 24점을 합하여 최대점수가 264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지지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9이었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version 11.5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아상과 사회적지지 점수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자아상과 사회적지지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상과 사회적지지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621명중에서 남학생이 242명(39.0%)이었고 여학생이 379(61.0%)이었으며 학생들의 연령 범위는 11-18세였으며 평균 15.0세였다. 청소년의 아버지 연령 범위는 37-62세, 평균 연령은 43.4세였으며, 어머니 연령 범위는 34-57세, 평균 연령은 41.1세였다.

아버지가 직업이 있는 학생이 41.1%(255명), 어머니의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0%(242명)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67.1%), 그 다음이 대학졸업(21.7%), 중학교졸업(11.1%)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졸업이 7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졸업(14.4%), 대학졸업(13.2%)순이었다.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학생은 250명(40.3%)이었고 나머지 371명(59.7%)은 한 쪽 부모 또는 양친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었다.

###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상

조선족청소년의 전체 자아상 점수의 평균은 325.1(47.0)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하위영역 중 정서상태, 충동조절, 성 영역에서는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실제로 여학생의 자아상이 남학생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기능, 직업에 대한 태도, 자기-신뢰 영역에서는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보다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상이 낮았다<Table 1>.

###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상 T점수

T 점수란 표준점수로 어떤 개인의 점수가 분포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의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점수로 자아상 점수를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0 인 분포로 전환하여 얻은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규준집단의 자아상 T점수 참고가 불가능하였기에 전체 대상자 621명 중 각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였다. T 점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 점수 = 50 + {10 x (규준집단의 각 영역별 평균-피검자

각 영역별 평균) /규준집단의 각 영역별 표준편차}

T 점수가 40-60 사이의 경우는 평균자아상을 나타내며 평균보다 낮을수록 자아상이 낮음을 의미하고 평균보다 높을수록 자아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조선족 청소년의 전체 자아상 T점수는 50.01점으로서 평균범위에 있었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정신건강(32.7점)과 가족기능(27.87점) 영역이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범위에 있었으며; 사회적 기능(56.53점), 직업에 대한 태도(57.31점), 자기-신뢰(55.29) 등 영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상주의(73.03점) 영역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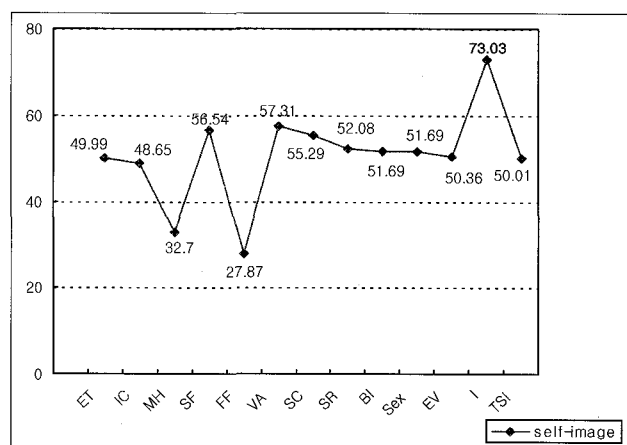
전체 자아상 T점수가 40-60점 범위에 있는 청소년은 모두 405명(65.2%)이고, 60점 이상인 청소년은 108명(17.4)이며 40

<Table 1> Means & standard deviation of self-Image for Korean-chinese adolescents (N=621)

Subscale	Total subject	Boy(242)	Girl(379)	t
	Mean(SD)	Mean(SD)	Mean(SD)	
TSI	325.1 (46.9)	326.8 (47.0)	324.0 (46.9)	.71
ET	28.9 (6.4)	28.3 (5.9)	29.4 (6.6)	-2.16*
IC	29.6 (5.2)	28.9 (5.2)	30.11(5.2)	-2.86**
MH	40.6 (6.8)	40.2 (6.2)	40.9 (7.1)	-1.20
SF	24.9 (6.1)	25.6 (6.1)	24.5 (6.1)	2.22*
FF	52.2 (10.5)	52.8 (9.9)	51.9 (10.9)	1.12
VA	24.26(6.39)	25.42(6.40)	23.52(6.29)	3.65**
SR	40.1 (7.6)	40.9 (7.8)	39.6 (7.4)	2.05*
SC	27.6 (6.6)	27.7 (6.6)	27.5 (6.6)	.41
BI	28.1 (5.2)	27.67(5.4)	28.29(5.1)	-1.44
Sex	37.3 (5.2)	36.4 (5.2)	37.9 (5.2)	-3.49**
EV	28.7 (5.8)	29.3 (5.9)	28.38(5.7)	1.87
I	20.2 (3.8)	20.4 (3.5)	20.1 (3.9)	.80

\*\* P<.01, \* P<.05

TSI: Total self-image, ET: Emotional tone, IC: Impulse control, MH: Mental health, SF: Social function, FF: Family function, VA: Vocational attitude, SR: Self-reliance, SC: Self-confidence, BI: Body image, Sex: Sexuality, EV: Ethical value, I: Idealism



<Figure 1> T-score of self-image for Korean-Chinese adolescents

점 이하에 속하는 청소년은 포함 108명(17.4%)이었다. T점수가 낮은 108명의 학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55.4%(60명)였으며, 연령이 15세 미만인 청소년이 62.4%(67명)를 차지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학생이 65.7%(71명),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학생이 75%(81명)를 점하였고 결혼가정 자녀가 69.4%(75명)를 차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상

청소년들의 전체 자아상점수는 학생의 연령, 부모의 직업유무, 부모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청소년의 나이가 많을수록 전체 자아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청소년의 자아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 중 일방 혹은 쌍방 모두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의 자아상 점수는 부모 모두와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Total self-im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adolescents (N=621)

		Total self-image	
		Mean(SD)	F or t
Gender	Boy	326.8 (47.0)	.71
	Girl	324.0 (46.9)	
Age(year)	≤14	316.8 (47.6)	5.67**
	15-16	327.3 (46.7)	
	17-18	337.1 (42.7)	
Grade	1	321.8 (47.9)	1.54
	2	324.2 (48.3)	
	3	325.3 (43.1)	
Father's Job	Yes	318.7 (47.6)	-2.86**
	No	329.6 (46.6)	
Mother's Job	Yes	318.0 (46.2)	-3.01**
	No	329.58(46.85)	
Father's education status	Middle school	342.5 (46.1)	13.68***
	High school	327.4 (45.5)	
	University	309.1 (46.9)	
Mother's education status	Middle school	334.8 (44.6)	4.93**
	High school	325.1 (47.9)	
	University	313.1 (41.7)	
Living with parents	Yes	319.4 (46.2)	2.47*
	No	322.9 (47.4)	

\*\* P<.01, \* P<.05

조선족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조선족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를 살펴보면, 전체 사회적지지 점수는 396.9 점이었으며 총 기능적지지 점수는 287.7

<Table 3> Means & standard deviation of social support for Korean-chinese adolescents (N=621)

Social support sub scale	Total subject (621)		Boy(242)		Girl(379)		t
	Mean(SD)		Mean(SD)		Mean(SD)		
Total social support	396.9(230.4)		357.4(236.2)		422.1(223.2)		-3.44***
Total functional support	287.7(170.7)		258.5(173.9)		306.3(166.1)		-3.43***
Affect support	95.5(57.1)		85.7(58.0)		101.8(55.6)		-3.45***
Affirmation support	97.7(58.8)		87.2(59.6)		104.3(57.3)		-3.57***
Aid support	94.5(56.7)		85.5(57.9)		100.2(55.3)		-3.16**
Total network	109.3(61.6)		98.9(63.9)		115.9(59.2)		-3.37***
Number of networks	12.2(7.2)		10.9(7.3)		13.0(7.6.0)		-3.53***
Duration of relationship	49.8(28.4)		44.9(29.4)		52.9(27.3)		-3.44***
Frequency of contact	47.3(28.3)		43.1(29.3)		49.9(27.4)		-2.97**

\*\*\* P<.001, \*\* P<.01

점이었으며 총 지지망의 점수는 109.3 점이였다. 청소년들의 평균 지지원수는 12명이였다. 사회적 지지 및 모든 하위영역의 점수가 여학생이 남학생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3>.

청소년들의 지지 제공자에 대한 응답인수와 비율을 보면 의미 있는 지지제공자로 어머니가 가장 많았으며(90.3%), 그 다음으로 친구(86.2%), 아버지(82.4%), 친척(76.3%), 조부모(42.4%), 교사(44.8%), 형제(20.5%)순이였다. 지지제공자별 응답 인수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친구가 평균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학생 1명당 평균 5.8명의 친구한테서 사회적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선족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총 기능적 지지, 총 지지망 및 사회적 지지 정도는 청소년의 성별, 연령, 학년,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전체 사회적지지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2학년학생이 1, 3학년학생에 비하여 총 기능적 지지, 총 지지망, 및 전체 사회적 지지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청소년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청소년이 총 기능적지지, 총 지지망, 전체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Table 4>.

<Table 4> Social suppor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adolescents (N=621)

		Total social support		Total functional support		Total network	
		Mean(SD)	F or t	Mean(SD)	F or t	Mean(SD)	F or t
Gender	Boy	357.4 (236.3)	3.44***	258.5 (173.9)	-3.43***	98.9( 63.8)	-3.37***
	Girl	422.1 (223.2)		306.3 (166.1)		115.9( 59.1)	
Age	≤14	428.9 (241.8)	5.17**	116.28( 63.7)	4.29*	312.6(180.1)	5.47**
	15-16	393.14(227.0)		109.0 ( 61.3)		284.18(167.6)	
	17-18	325.7 (197.9)		90.9 ( 53.1)		234.8(146.2)	
Grade	1	383.6 (226.0)	7.75***	278.4 (167.4)	8.11***	105.2( 60.4)	6.4**
	2	439.6 (247.8)		319.7 (183.4)		119.8( 66.4)	
	3	353.8 (199.9)		254.4 (148.1)		99.4( 53.7)	
Father's Job	Yes	424.54(244.8)	2.45*	308.8 (181.6)	2.53*	115.8( 65.1)	2.17*
	No	377.7 (218.1)		272.9 (161.3)		104.7( 58.7)	
Mother's Job	Yes	444.8 (242.3)	4.09**	323.4 (179.8)	4.13***	121.4( 64.3)	3.87**
	No	366.4 (217.3)		264.8 (160.6)		101.6( 58.6)	
Father's education status	Middle school	310.5 (165.9)	16.70***	223.5 (123.4)	16.97***	86.9( 43.9)	12.49***
	High school	382.2 (225.7)		276.6 (166.5)		105.7( 61.0)	
	University	486.5 (246.8)		354.6 (184.3)		131.9( 64.7)	
Mother's education status	Middle school	329.3 (186.6)	12.04***	237.5 (137.7)	11.55***	91.8( 50.2)	11.43***
	High school	394. (230.2)		286.4 (170.5)		108.6( 61.7)	
	University	491.5 (250.3)		356.9 (186.4)		134.6( 66.0)	
Living with parents	Yes	401.8 (231.4)	-.44	290.1 (170.0)	-.30	111.7( 62.9)	-.81
	No	393.6 (229.9)		285.9 (171.3)		107.6( 60.7)	

\*\*\* P<.001, \*\* P<.01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상과 사회적지지의 관계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상 점수와 전체 사회적지지, 총기능적 지지, 지각된 애정지지, 긍정적 지지, 물질적 지지, 총지지망은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로 자아상이 낮은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더 적게 지각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망도 적음을 알 수 있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elf-image and social support

	Total self-image
Total social support	-.309***
Total functional support	-.314***
Affect support	-.305***
Affirmation support	-.315***
Aid support	-.312***
Total social support network	-.284***

\*\*\* P<.001

판 의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의 자아상 발달 수준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의 정도 및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들을 위주로 청소년의 자아상, 사회적지지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상과 사회적지지의 차이와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선족 청소년의 전체 자아상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났다. Offer, Ostrov, Howard, Dolan(1992)의 Offer의 자아상 척도 표준화 연구와 Hong 등(1998a)의 Offer의 자아상 척도 한국표준화 연구 결과 청소년의 전체 자아상은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한국의 청소년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Son(2002)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한편 같은 도구를 사용한 Hong 등(1998b)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과 연변조선족, 한족 청소년들의 자아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행하였는데 한족 청소년들의 자아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조선족 청소년들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자아상을 보였고, 한국 청소년들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자아상을 보였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자아상 발달 수준은 문화적 배경과 민족적 요인 및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분석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청소년, 부모가 직업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가정환경이 바람직하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부모들이 자

녀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응하고 지도를 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자아상발달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결혼가정의 청소년이 자아상이 정상가정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쪽 부모 혹은 양친의 부재로 인하여 청소년기 자녀들은 개인내적인 발달과업 이외에도 가정환경의 변화와 수반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식의 변화 등도 청소년의 자아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자아상 척도의 하위 영역 중에서 정서상태, 충동조절, 성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Hong 등(1998a)의 결과에서도 정서상태, 충동조절, 정신건강, 성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서상태가 안정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조절능력이 강하며 성에 대한 흥미가 높고 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기능, 직업에 대한 태도와 자기-신뢰 영역에서는 조선족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Hong 등(1998b)의 연구에서도 한국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에 대한 태도나 자기-신뢰영역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여성지위의 향상으로 취업이나 고용 시 남녀의 성차가 비교적 적어 여학생들이 학업이나 장래의 직업선택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으며 미래에 대해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일면 한국사회에서나 조선족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들에 대한 부모나 사회의 기대가 딸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태도와 자기-신뢰 영역에서 여학생보다 자아상 발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심리사회적 적응의 측면에서도 보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총 621명의 대상자 중에서 전체 자아상 T 점수가 평균이하인 학생이 108명이었는데 이들 청소년의 특성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업이 없는 학생이 대다수였으며 결혼가정 학생도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상 정립에 있어서 가정환경 변인의 중요성 특히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각 하위영역 자아상 척도의 T 점수를 보면 정신건강 영역과 가족 기능 영역, 이상주의 영역을 제외한 아홉 영역에서 평균범위에 포함되었다. 정신건강 영역과 가족기능 영역의 자아상 T점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이상주의 영역의 T점수는 아주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자아상 확립의 중요한 시기에 가정에서 부모와의 대화가 적고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적게 받으며 부모나 가정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가족이나 교우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으며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상주의 영역의 T점수가 높은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학교들에서 이상주의교육을 중시한 결과 청소년들이 도덕적이거나 이타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발달과 자아상의 확립은 문화와 민족적인 영향과 가정 환경적 변인, 사회 환경적 변인 및 개인 내적 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런 변인들을 포함하여 부동한 국가와 민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문화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서족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영역별로 볼 때 긍정적지지 애정적 지지, 물질적지지의 순으로 세 영역에서 비슷한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1999)이 한국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긍정적 지지, 애정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순으로 세 영역에서 비슷하게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반대로 Norbeck 등(1983)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애정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은 서구인에 비해 애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Lee(1997)와 Kim(2000)의 연구와 조선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Cho 등(2005)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남자는 여아에 비해 자기표현과 자기 개방을 억제하며,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자제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자는 남아에 비해 대인관계 지향적이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가치를 두도록 강화를 받는다(Goo, 2000).

본 연구에서 부모, 친구, 친척, 조부모가 조선족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지지제공자로 나타났으며 가족중심의 지지가 주종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지제공자 중 어머니 다음으로 친구가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총 기능적지지에서도 부모 다음으로 친구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전기, 중기, 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ang(2002)의 연구에서 부모다음으로 친구의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14세 이후에는 부모의 지지보다 친구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는 서양의 연구결과(Marianne, Wilma, & Win, 2002)와 상반된다. 이런 결과는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동양권 문화에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대부분 성인기에 이루어지며 청소년기동안에는 부모의 영향이 큰 반면 서양의 경우는 부

모로부터의 독립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애정적이고 안정적이며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기 자녀들의 사회적, 심리적, 행동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 상 또래나 친구집단의 중요성과 영향은 점점 증가하여 그 이전의 발달 시기에 비해 친구의 수가 많아지고 절반이상의 시간을 친구와 함께 보내는 특징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되면서도 일면 대부분의 조선족 청소년이 외동자녀이며,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과잉보호를 받음으로서 한국 청소년에 비해 부모에게 더 의존적이며 부모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색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더 많은 것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가 타인과 접촉하는 것을 더 많이 격려해주고 타인에게서 지지를 얻고자 하는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다(Lee, 1997).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청소년이 사회적지지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취업모는 비록 자녀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더 중시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상점수와 전체 사회적지지, 총기능적지지, 애정지지, 긍정적 지지, 물질적 지지, 총지지만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실제로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타인의 도움을 더 많이 원하고 있고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부모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청소년의 우울/불안, 공격성 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Chang(2002)의 연구결과와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에서의 부모나 친척의 지지 및 학교에서의 친구의 지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상관이 있었다는 Lee와 Choi(2002)의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자아정체감 역시 높게 나타났다는 Yoo(200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기에 부모나 친척, 친구 등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공 받는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자아상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상 발달 수준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의 정도 및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는 중국 연길시 소재 조선족 중학교 1,2,3학년 학생 전수로서 연길시 소재 5곳의 중학교에서 학교당 학년 별 한 학급씩 표출하여 총 700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3월 1일부터 9일까지였으며 총 7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가 연결시 각 중학교 지도부와 담임선생님의 동의를 얻은 후, 학급 단위로 연구자가 담임선생님한테 의뢰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3일내에 회수하였다.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설문지 79부를 제외하고 총 621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version 11.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빈도를 구하였으며 자아상과 사회적지지 점수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상과 사회적지지는 t-test와 X<sup>2</sup>-test,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아상과 사회적지지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 청소년의 전체 자아상 점수는 325.08(±46.91) 점이었으며 최소값은 176점, 최고값은 492점이었으며 남학생의 전체 자아상 점수는 326.75(±46.96)점, 여학생의 전체 자아상 점수는 324.02(±46.90)점으로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자아상 척도의 하위 영역 중 정서상태, 충동조절, 성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자아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능, 직업에 대한 태도와 자기신뢰 영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자아상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청소년의 전체 자아상 점수는 대상자의 연령, 부모의 직업유무, 부모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전체 자아상과 각 하위영역 자아상 T점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전체 자아상 T점수는 50.01로서 평균범위 내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자아상 T 점수가 평균이하인 학생이 108명이었으며 하위 척도의 T 점수는 정신건강 영역과 가족기능영역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고 이상주의 영역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넷째, 조선족 청소년들의 전체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는 396.92(±230.38)이었으며 최소값은 32점, 최고값은 942점이었다. 총기능적 지지에서 긍정지지, 애정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지지제공자는 어머니 다음으로 친구가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총기능적 지지 정도에서도 부모 다음으로 친구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상점수와 사회적지지 정도는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아상이 높은 아이들이 타인의 도움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으며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의 자아상과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지지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자아상과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지지의 관계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를 연결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학생에만 국한시켰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연변 내 타지역을 포함하고 범위를 고등학생까지 확장시키며 다른 민족의 청소년도 포함시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동거형태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상 및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다를 것이라 예측되며 따라서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및 조부모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자아상과 지각된 사회적지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실직가정 및 결손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기반 지지프로그램의 개발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 도움을 주며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하는 학교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자아상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특히 중국지역의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상황에서 청소년의 자아상 발달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하였으며, 추후 조선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이들이 심리사회적인 발달과 적응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Cai, M. H. (2004). An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Ethnic Korea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in Yanbian. *Dongjiang Journal*, 21(4), 101-109.
- Chang, Y. J.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The Seoul Wome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Cho, B. H., Lee, J. S., Han, S. Y. (2005). The Relationships Among Home Environment,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Korean-Chinese Children in Yanbian. *J of the Korean Academic Family Medicine*, 43(3), 91-104.
- Goo, J. E. (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silience, Positive Emotion,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Adjustment in Family Life·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



- dissertation,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usan.
- Hong, K. E., Kim, B. S., Shin, M. S. (1998a). A Standardization Study of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Revised. *J of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7(1) 118-133.
- Hong, K. E., Shin, M. S., Biao, M. Z., Woo, J. I., Cho, S. C., Jung, D. U., Ha, K. S. (1998b). Corss-Cultur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Image in Korean, Korean-Chinese and Chinese Adolescents. *J of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7(6).
- Kahn, R., & Antonucci, T. (1980). Convoys over the life-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P. Baltes & O. Brim(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3, 254-286.
- Kim, D. H. (1997). Stress among Chinese, Korean-Chinese and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 Transcultural Study. *J of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6(2) 304-314.
- Kim, H. S., Oh, K. S., Margaret, S., Lee, S. O., Oh, K.O., Kim, J. A., Jeong, C. J.(1999). A Study of validity and reliability: NSSQ and PRQ in Korea. *Korean J of Query*, 8(2), 161-180.
- Kim, Y. A. (2000). *The Relationship of Stress Levels, Social support, and Health Behaviors in the Adolescent Popula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C. J., Kwak, K. J. (1994). Psychosocial development in terms of Self-Image in Korean adolescents ( I ). *Korean J of Psychology: Developmental*, 7(2), 119-135.
- Lee, J. S. (1995). Comparisons on Ego Identity between Korean Adolescents and Those of Jilin Koreans. *The Kon-Kuk J of Medical Sciences*, 5, 107-121
- Lee. K. J. (1997). *Stress, Social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Kwangju.
- Lee, K. Y., Choi, S. Y. (2002). In Adolescent, the relationship between a perceived social support standard at home and school and ego-identity. *The J of Child Education*, 11(1), 01-213
- Marianne H. S., Wilma, V. B., and Win M. (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ce. *J of Youth and adolescence*, 29, 319-335
- Norbeck, J. S., Lindersey, A. M., Carrier, V. L. (1981).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Nur Res*, 30(5), 264-269.
- Norbeck J. S, Lindsey AM, Carrieri V. L.(1983). Further development of the Norbeck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Nurs Res*. 32:4-9.
- Offer, D., Ostrov, E., Howard, K., Atkinson R. (1988). *The Teenage World: Adolescents' Self-Image in Ten Countries*. New York, Plenum Medical.
- Offer, D., Ostrov, E., Howard, K. I., & Dolan, S. (1992).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Revised(OSIQ-R) Manual*. WPS.
- Oh, K. S. (1984). *Family Functioning and Social support of Korean Families with Mentally Retarded Children*. Texas Wome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Oh, K. S., Han, J. S. (1990). Stressful Life Events, Health Symptoms, Social Support and Coping in Early Adolescent. *J Korean Acad Nurs*, 20(3), 414-427.
- Park, A. C., Lee, S, K. (1999). A Structural and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Ego-identity Development. *J of Educational Psychology*, 13(4), 113-142
- Son. S. Y. (2002). *Self-image of adolescents with Cancer*.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Yoo. M. R.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Internet Addiction, Social support perception and Ego-identity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The Sog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 Self-image and Social Support of Adolescents among the Korean - Chinese

Cui, WenXiang<sup>1)</sup> · Jin, ShengJi<sup>1)</sup> · Oh, Kasil<sup>2)</sup>

1) Yanbian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Jilin, Chain, 2)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degree of self-image and social support among Korean-Chinese adolescent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Method:** A total of 621 Korean-Chinese adolescents in five middle schools in YanBian, China were recruited from March 1st to the 9th, 2005. Data was analys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d ANOVA with the SPSS 11.5 program. **Result:** In Korean-Chinese adolescents, the total self-image score was statistically different for age, parents' education status, parents' job and living with parents. In the 12 subscales, scores of emotional tone, impulse control, sexuality, social functioning, vocational attitudes and self-reliance ha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regarding gender. The total self-image was in the average range. However, areas of mental health and family function were lower than average and the scale of idealism was higher than average. The adolescents perceived parent's support was higher than friend's suppor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image and social support.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ere is a need to examine self-image and social support of Korean- Chinese adolescents according to their parents' marital status and a need to develop a program to help these broken family's adolescents.

**Key words :** Smoking, Stages of change, Coronary artery disease, Self-efficacy, Nicotine dependenc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in, ShengJi

*Yanbian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Jilin, China*

*3A-425 Housing Office,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6-433-2661066 Fax: +86-433-2615502 E-mail: jsjdq@hanmail.net*